

미국노인의 유산상속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Who are likely to leave a bequest among older Americans ?

퍼듀대학교 소비자학과

조교수 : 洪 公 淑

Consumer Sciences & Retailing

Purdue University

Assistant Prof. : Gong-Soog, Hong

충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 金 純 美

Dept. of Home Economics Educ.,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 : Soon-Mi, Kim

경성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강사 : 金 娟 廷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sung University

Lecturer : Yeon-Jeong, Kim

본 연구는 1992 Health and Retirement Survey(HRS' the Beta Release)를 사용하여 유산상속 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조사를 위해 사용된 표본은 55세이상의 노인 2,208명이었으며, 표본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빈도를 분석하였고 유산상속 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Probit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주택지분액이 클수록, 저축·CD·채권·주식보유액이 많은 노인일수록 유산상속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거나 백인 노인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낮거나 백인이 아닌 경우보다 유산상속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자녀수가 많은 노인은 유산상속을 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I. 문제 제기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1982년 약 200만달러가 유산상속의 형태로 세대간 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s)되었으며, 앞으로 20년동안 8,000만 달러의 순자산이 세대간 이전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Zabner, 1993). 이처럼 미국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약 80%는 세대간 이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약 20

%는 생애소득에 의해서 축적된 것이다(Kotlikoff & Summers, 1981; Zachary, 1995).

세대간 이전, 즉 상속(inheritance) 및 유산상속(bequest)¹⁾은 자산축적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자산분배에 있어서 불균등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세대간 이전은 개인과 가족에게 동등한 기회의 제공을 저해하고 경제적 형평을 깨뜨리며, 사회경제적 이동을 막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사회내의 세대간 이전과 관련된 현상들은 자유, 공정성, 효율성 및 형평성 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Koretz, 1992).

세대간 이전에 관한 새로운 이론과 실증연구들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생애주기 가설에 도전하면서, 상속 및 유산상속의 경제적 의미와 가족구성원간의 소득불평등성 및 자산분배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20여년동안 이루어진 세대간 이전에 관한 이론은 총저축의 기본이론인 생애주기가설을 확장시킨 이론으로서, 이타적 유산상속동기이론(the altruistic bequest motive theory), 전략적 유산상속동기이론(the strategic bequest motive theory)²⁾ 및 우발적 유산상속이론(the accidental bequest theory)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타적 유산상속동기이론은 이타적인 부모가 자신의 소비효용뿐 아니라 자녀들의 소비효용을 위해 자산을 저축하고 자녀들에게 인적자본투자를 한다는 이론(Becker, 1974; Tomes, 1981; Menchik & David, 1983)이며, 전략적 유산상속동기이론은 부모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서비스 대가로 자신의 소유자산을 서로 교환한다는 이론이다(Bernheim, Shleifer & Summers, 1985). 또한 우발적 유산상속이론은 사망시기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죽음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고자 저축하지만 사망시기가 불확실하여 계획 없이 유산상속을 남기게 된다는 이론이다(Hurd, 1987, 1989).

위에 제시된 이론들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검증되었으나 개인의 유산상속동기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일치된 견해를 보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 및 유산상속은 가계의 자본축적, 부(wealth)의 분배 및 소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대간 이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Carroll, 1991).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가계의 저축율은 27.9%(통계청, 1993)를 나타내고 있으며, 저축동기는 은퇴를 대비한 저축, 자녀교육을

위한 저축, 자녀를 위한 유산상속, 주요내구재 구매 및 긴급자금대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가계의 저축동기중 자녀를 위한 유산상속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가정경제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유산상속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에서 이루어진 유산상속에 관련된 이론과 연구를 중심으로 가계의 유산상속 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정경제학의 유산상속에 관한 연구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며, 가계의 소득, 소비 및 저축행동, 부의 분배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세대간의 경제적 복지를 계획하고 개선시키는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계에 필요한 복지프로그램이나 상속세제도 등과 같은 정책의 계획과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Avery & Rendall, 1993).

II. 선행연구 및 관련변수

1. 선행연구

이타적 부모는 자녀들의 미래 소득능력과 생애자원을 걱정하기 때문에 인적자본 및 경제적 자원이 적은 자녀에게 보상동기로서 유산상속을 하게 된다. Becker(1974)는 이타주의적 가족가치때문에 가족구성원간의 자원이전이 다른 가족구성원의 소비에 해를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가족구성원들의 경제적 행동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부모는 자녀들의 경제적 복지가 동등하게 되도록 소득이 낮은 자녀에게 인적자본투자나 유산상속을 통한 세대간 이전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또 인적자본투자모델과 생애주기모델을 결합하여 자녀의 교육투자와 유산상속에 대한 가계의 결정을 조사한 Ishikawa(1975)도 부모가 자신의 소비외에도 자녀들의 복지를 위한 이타적 가족가치에 근거하여 증여나 유산을 남긴다고 하였다.

한편 Becker와 Tomes(1979)에 의해 개발된 소득분배와 세대간의 이동성에 관한 균형이론은 가계가 여러 세대에 걸쳐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가정, 즉 부모는 자신의 소비뿐 아니라 자녀의 복지를 통해서도 효용을 얻는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연구결과에서

1) 본 연구에서는 개념사용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inheritance)을 '상속', 부모가 자녀에게 남기는 유산(bequest)을 '유산상속'으로 사용한다.

2) 교환유산상속동기이론(the exchange bequest motive theory)이라 하기도 한다.

자녀소득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투자 및 비인적자본의 이전과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이러한 투자 및 이전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투자성향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또한 투자성향은 인종, 능력 등과 같은 자녀의 자질, 부모의 지식수준 및 소득 등과 같은 가족환경, 그리고 재정자본의 수익율, 조세정책 등과 같은 시장적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Blomquist(1979)는 상속액 결정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녀의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크기, 가족의 경제적 조건, 세대간 갈등과 상속액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속액은 자녀연령이 60세까지 증가하였고, 그 이후부터 감소하였다. 또 부모의 교육수준은 상속액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준 반면, 모의 교육수준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 밖에 자녀가 성장기에 경험한 가족의 경제적 조건은 상속액과 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가족크기와 부모자녀간의 갈등은 중요한 예측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Tomes(1981)는, 부모소득과 교육수준이 일정할 때 유산상속액이 자녀소득과 부적 관계를 보인다는 결과를 통하여 이타적 유산상속가설을 지지하였다. 또한 부모의 소득 및 교육수준이 일정하다면, 가족수가 적은 가정의 자녀가 가족수가 많은 가정의 자녀보다 상속액이 더 많아 가족수가 세대간 이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부모는 자녀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근거하여 유산상속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략적 동기는 자녀의 서비스에 대하여 부모의 선호가 존재한다는 전제와 자녀의 행동에 따라 유산을 남긴다는 전제에서 비롯된다.

Bernheim, Shleifer와 Summers(1985)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서비스와 유산상속액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유산상속액과 자녀의 방문회수는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부모의 건강상태가 나쁘면 자녀의 관심이 적다고 하였다. 또 유산상속액을 많이 남겨 줄 수 있는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자녀서비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전략적 유산상속동기를 지지해 주는 증거이다. 전략적 유산상속은 부모가 자신에게 서비스를 많이 한 자녀에게 남기는 것이므로, 한 자녀가정이 아닌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소득과 자산수준은 유산상속액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는데, 예를 들면, 소득이 높거나 자산을 많이 가진 자녀는 소득이 낮거나 자산이 적은 자녀보다 상대적으로 서비스비용이 적게 들므로 부모를 더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용을 비교하는 부모는 자녀서비스에 의존하기보다 의료보호나 간병인과 같은 전문서비스를 얻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들은 전략적 유산상속동기이론의 타당성을 제한하기도 한다.

한편 Cox(1987)는 세대간 이전행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타적 유산상속동기와 전략적 유산상속동기를 유산상속모델에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부모의 효용이 자신의 소비, 자녀들의 복지, 그리고 자녀들의 서비스에 의존한다고 가정하고, 연령, 결혼상태, 성별 및 인종 등의 변수를 모델에 포함시켰다. 연구결과, 부모소득과 자녀가 받는 이전 가능성은 정적 관계를 보인 반면, 자녀소득은 이전 가능성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 또 소득이 높은 부모는 소득이 낮은 부모보다 더 많은 이전액을 남겼으며 소득이 높은 자녀의 이전액은 소득이 낮은 자녀보다 많았다. 그러나 모델에 포함된 다른 변수는 세대간 이전 가능성과 세대간 이전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전략적 유산상속동기만을 지지하였다.

이타적 동기나 전략적 동기외에도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사망시기가 불확실하고 사망의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신의 축적자산을 사용하며 사망후 남은 자산을 자녀에게 유산상속으로 남기게 된다. Hurd(1987)는 은퇴한 노인의 유산상속동기를 조사하기 위해 자산변화를 측정하였다. 이때 유산상속동기가 있는 가계는 동기가 없는 가계보다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자산변화율은 첫 해와 다음 해간의 실질자산 변화율로 보았다. 연구결과, 나이가 들수록 부의 저축율(dissaving rate)이 증가하며, 자녀를 둔 가계와 무자녀가계의 저축율을 비교하였을 때, 자녀를 둔 가계의 저축이 적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가계의 유산상속동기는 약하며, 유산상속은 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노인의 죽음때문에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Hurd(1989)는 사망위험회피와 유산상속의

한계효용함수로서 가계가 부모로부터 원하는 상속액을 추정한 결과, 가계는 죽음에 대한 위험에 적절한 수준으로 회피(대처)하며, 유산상속에 대해 갖는 한계효용은 낮다고 하였다. 이것은 대부분의 유산상속이 우발적이거나 사망위험에 의한 것이지 유산상속동기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가계의 유산상속행동을 조사한 Hurd와 Mundaca(1989)는 소득계층과 유산상속액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총자산에 대한 유산상속액과 증여액(the gifts)의 비율이 평균 20% 정도였으며, 가장 높은 소득계층에서는 총자산에 대한 증여액의 비율이 10% 미만, 총자산에 대한 유산상속액의 비율은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더우기 가계의 유산상속이 자산축적에 중요한 원천은 아니며, 가계는 생애주기모델에 따라 저축하였을 뿐 의미있는 유산상속동기는 없다고 하였다.

2. 유산상속동기의 관련변수

유산상속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유산상속 개념은 일반적으로 유산상속의 확률과 유산상속액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즉 유산상속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은 경우를 이분변수로 파악하는 것과 유산상속액을 측정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유산상속이 경제적 요인, 직업관련 요인, 건강관련 요인 및 인구통계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제시하였다(Hurd & Mundaca, 1989; Cooney & Uhlenberg, 1992; Eggebeen & Hogan, 1990; Kao, 1994).

1) 경제적 요인

일반적으로 이타적인 부모는 자녀들의 복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녀에게 필요한 자원과 유산상속을 남기기 위해 저축을 한다(Becker & Tomes, 1986). 또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상태가 아닌 부부가족의 경우, 부모 각자가 그들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충분한 유산상속액을 남기게 된다(Eggebeen, 1992). 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상속을 할 가능성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액과 정적 관계를 갖는다.

반면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유산상속 가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Freedman, Wolf, Soldo와 Stephen(1991)은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 연구한 결과,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자녀들의 자산축적과 부적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산축적의 감소는 유산상속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된 재정자원의 소득은 유산상속에 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유산상속은 정상재이기 때문)(Menchik & David, 1983; Bernheim, 1991). 가계의 유산상속동기와 행동을 조사한 Hurd(1987), Hurd와 Mundaca(1989)는 총자산에 대한 유산상속액과 증여액의 비율이 평균 20% 정도였으며, 높은 소득계층에서는 총자산에 대한 유산상속액의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계의 자산 및 자산소득이 증가할수록 유산상속 가능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 직업관련 요인

직업은 개인이나 가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설명하는 대리변수로서,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소득과 총자산이 증가하게 되어 자녀에게 남길 유산상속 가능성이 높아진다(Menchik & David, 1983). 또한 직업 중단 및 해고경험이 많아져 직업안정도가 낮아지면, 결과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아지게 되어 총자산의 축적뿐 아니라 유산상속 가능성에도 부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은퇴 예상시기는 직업 및 건강조건 등에 따라 다르므로 연령이 낮다고 하여 은퇴준비기간이 긴 것은 아니다. 은퇴준비기간은 자신의 노후준비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경제적 지위를 위해 남기는 자산축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은퇴준비기간이 길면 은퇴후에 예상되는 소비효용 및 경제적 위험뿐 아니라 자신의 사망후 자녀들의 소비효용을 위해서 축적하는 총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은퇴준비기간이 짧으면 자녀들의 소비효용보다 자신들의 소비효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므로 자산축적액이 유산상속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Cooney & Uhlenberg, 1992).

3) 건강관련 요인

건강은 정서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서적 건강은 신체적 건강에 대한 인식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개인은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거나 만성적 질병 및 수명과 관련된 심각한 질병이 있다면, 건강위험이나 사망위험이 높아지게 되어 자녀들의 서비스를 받거나 제도적 요양기관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자녀의 서비스제공이나 건강비용의 증가는 유산상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ernheim, Shleifer & Summers, 1985; Stum, Bauer & Delaney, 1993).

4) 인구통계적 특성

생애주기에 따른 유산상속 결정에 관한 연구(Bernheim, 1991)에 의하면, 생애초기에는 유산상속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노년기에는 부의 저축을 예상하기 때문에 유산상속 가능성과 연령간에 곡선관계를 나타낸다. 반면 Kao(199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생애주기의 중기보다 초기나 후기에 유산상속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ox(1987)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유산상속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세대간 이전에 관한 많은 연구들도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속할 자원량이 증가한다고 하였다(Cooney & Uhlenberg, 1992; Eggebeen, 1992).

인종은 유산상속 확률이나 세대간 이전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특히 인종간에는 가족구조, 경제적 지위, 사회구조적 조건면에서 차이를 보여 백인들이 유색인에 비해 유산상속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Burton & Dilworth-Anderson, 1991; Avery & Rendall, 1993).

자녀에게 남길 유산상속액은 부모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던 Cox(1987)는 부가 자녀에게 더 많은 유산상속액을 남긴다고 하였다. 또한 유산상속의 결정은 부모의 결혼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부가족은 가족가치를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자녀에 대해 이타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가족(이혼, 별거, 사별, 독신가족 등)보다 자녀들에게 재정적 지원이나 유산상속을 할 가능성이 높다(Kodlikoff & Summer, 1981).

가족크기가 큰 가족은 형제자매사이에서 유산상속액에 대한 경쟁때문에 유산상속액이 적어지며, 또 자녀가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적자본투자 때문에 유산상속을 위한 자산액이 적어지게 된다(Hurd, 1987; Cooney & Uhlenberg, 1992).

자녀에게 남길 유산상속액은 주거위치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농촌가계는 도시가계보다 소득수준이 낮으며 상대적 빈곤감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McLaughlin & Jensen, 1991). 농촌가계가 소득격차와 상대적 빈곤감을 경험하게 되면 자산축적에 부적 영향을 미쳐 유산상속동기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 농촌가계는 농장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농장을 자녀에게 유산상속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III. 연구모델 및 연구방법

1. 연구모델

가계의 유산상속 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모델은 다음과 같다. 유산상속 결정 = f(경제적 요인, 직업관련 요인, 건강관련 요인, 인구통계적 특성)

선행연구 및 관련변수에 기초하여, 유산상속 결정의 변수로 유산상속 확률이 선정되었고, 경제적 요인에는 상속액,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현재주택지분, 기타주택의 지분, 주식·상호기금·신탁액, 저축계좌·당좌예금액, CD·정부채권·증권, 회사채·지방채액, 직업관련 요인에는 직업안정도, 은퇴준비기간, 건강관련 요인에는 정서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 그리고 인구통계적 특성에는 연령, 교육수준, 인종, 성별, 결혼상태, 가족크기, 농촌거주여부 변수가 포함되었다.

2. 연구방법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University of Michigan의 The Survey Research Center에서 수집한 1992 Beta Release Health and Retirement(HRS)이다. 1992 HRS는 노인연령층의 경제과정과 행동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종단적 조사로써, 12,656명의 노동력참여, 연금, 건강상태 및 건강지위, 가족구조, 사회적 지원 및 사회적 이동성, 경제적 지위,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Juster & Suzman, 1994).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유산상속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55세

이상의 2,208 명을 조사대상으로 제한하였다. 그것은 Current Population Survey(CPS)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지난 20여년동안의 노인 및 은퇴에 관한 연구 대부분이 55세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55세이후부터는 은퇴 및 자신의 사망이후 자산의 상속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또 부모의 유산상속 확률은 이분변수이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Probit 분석을 수행하였다 (Greene, 1993). Probit 분석에 앞서 연구모델에 사용된 변수들의 단변량관계 및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Pearson's 상관계수는 .05 수준미만에서 유의하였으며, VIF 값은 10미만으로 나타났다.

2) 분석방법

먼저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과 빈도를

IV. 분석결과

1. 유산상속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 의 및 측 정 방 법
종속변수 :	
유산상속 결정	유산상속 확률 : 1=유산상속을 할 것임 0=유산상속을 하지 않을 것임
설명변수 :	
경제적 요인	
상속액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액(\$)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응답자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액+배우자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액)(\$ month)
현재주택지분	(현재주택가격-저당액)(\$)
기타주택의 지분	(현재주택을 제외한 기타주택의 현재가격-저당액)(\$)
주식, 상호기금, 신탁	주식, 상호기금, 신탁액의 순자산(\$)
저축계좌, 당좌예금	저축 및 당좌예금의 순자산(\$)
CD, 정부채권, 증권	CD, 정부채권, 증권의 순자산(\$)
회사채, 지방채	회사채, 지방채, 외국채, 채권기금의 순자산(\$)
직업관련 요인	
직업안정도	(일시적 해고회수+실업회수+구직경험회수)
은퇴준비기간	은퇴계획년도-1991(년수)
건강관련 요인	
정서적 건강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 : 1=전혀 건강하지 않음 2=건강하지 않음, 3=보통, 4=건강함, 5=매우 건강함
신체적 건강	질병수 : 고혈압 1=없음, 0=있음 당뇨병 1=없음, 0=있음 암, 종양 1=없음, 0=있음 폐 병 1=없음, 0=있음 심장병 1=없음, 0=있음
인구통계적 특성	
연 령	연령(55세 이상)
교육수준	교육년수
인 종	1=백인, 0=유색인(흑인, 아메리칸인디언, 아시아인, 히스패닉, 브라운, 모라노계 등)
성 별	1=남성, 0=여성
결혼상태	1=부부가족, 0=기타가족(이혼, 사별, 별거, 독신 등)
가족크기	자녀수 : (동거자녀수+별거자녀수)
농촌거주여부	1=농촌거주, 0=농촌거주하지 않음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208)

변수	집단	빈도 (%)	변수	집단	빈도 (%)
유산상속	상속	957(43.3)	인종	백인	1,554(70.4)
결정	비상속	1,251(56.7)		색인	654(29.6)
정서적	전혀 건강	94(4.3)	성별	남성	1,375(62.3)
건강	희미한 건강	327(14.8)		여성	833(37.7)
	건강치않음	693(31.4)	결혼상태	부부	1,535(69.5)
	보통	653(29.9)		가족	673(30.5)
	매우건강함	441(20.0)	농촌여	주거비해당	75(3.4)
					2,133(96.6)
변수		Mean	S.D.		
상속액(\$)		7,812.48	34,739.52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액(\$/month)		40.17	314.34		
현재주택지분액(\$)		60,724.90	74,229.21		
기타주택지분액(\$)		12,375.00	117,608.40		
주식, 상호기금, 신탁액(\$)		17,192.04	86,629.65		
저축계좌, 당좌예금액(\$)		13,714.53	62,968.44		
CD, 정부채권, 증권액(\$)		7,251.32	34,781.84		
회사채, 지방채액(\$)		2,456.57	23,312.53		
직업안정도(회)		0.41	2.64		
은퇴준비기간(년)		4.74	4.46		
신체적 건강(질병수)		1.34	1.13		
연령(세)		59.22	3.61		
교육수준(년)		12.08	3.37		
자녀수(명)		1.55	2.28		

유산상속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직업관련 요인, 건강관련 요인 및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경제적 요인중 비유동자산의 경우는 현재주택지분과 기타주택지분이 클수록 유산상속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유동자산에 있어서는 특히 유동성이 높은 저축계좌나 당좌예금액, CD·정부채권·증권액이 많을수록 유산상속 확률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자산이 많은 부모가 자녀들의 생활이 중간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거나, 경제적 안정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상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 Menchik과 David(198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타적 유산상속동기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건강관련 요인중 정서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은 모두 유산상속 결정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정서적 건강에 있어서는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유산상속 확률이 낮았는데, 노인의 정서적 건강상태는

전반적인 신체능력 및 질병에 대한 민감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자산소유의 결정뿐 아니라 유산상속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한편 신체적 건강에 있어서 만성질환이 많거나 심각한 질병이 있을 때, 유산상속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특히 신체적 건강은 정서적 건강보다 유산상속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 결과는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제도적 시설 및 기관의 이용, 건강위험 및 사망위험으로 인한 건강비용증가로 유산상속 확률이 낮게 나타난 Stum, Bauer와 Delaney(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유산상속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적 특성에서는 교육수준, 인종, 자녀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유산상속 가능성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여,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유산상속 가능성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세대간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녀들의 경제적 복지를 개선하는 이타적 태도를

표 3. 유산상속 결정의 영향요인에 대한 Probit 분석결과

(N=2,208)

변 수	Estimated Coefficients	Standard Errors
경제적 요인		
상속액(\$1,000)	.0016	.0011
부모에대한 경제적 지원액(\$1,000)	-.0224	.1001
현재주택지분액(\$1,000)	.0048***	.0006
기타주택지분액(\$1,000)	.0027**	.0010
주식, 상호기금, 신탁액(\$1,000)	.0005	.0005
저축계좌, 당좌예금액(\$1,000)	.0036**	.0012
CD, 정부채권, 증권액(\$1,000)	.0041**	.0013
회사채, 지방채액(\$1,000)	.0030	.0027
직업관련 요인		
직업안정도	.0078	.0119
은퇴준비기간	-.0047	.0078
건강관련 요인		
정서적 건강	.0684*	.0299
신체적 건강	.0898**	.0285
인구통계적 특성		
연 령	-.0103	.0095
교육수준	.0208*	.0102
인 종	.2982***	.0720
성 별		
남 성	.0455	.0827
결혼상태		
부부가족	-.0802	.0760
자녀수	-.0565**	.0183
농촌거주여부		
농촌거주	.1604	.1617
Intercept	0.4075	
Log Likelihood	-1336.3085***	

* p<.05, **p<.01, ***p<.001

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결과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유산상속이나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결정요인이 된다는 선행연구(Cox, 1987; Eggebeen & Hogan, 1990; Eggebeen, 1992)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인종에 있어서 백인은 유색인보다 유산상속 가능성이 높았으며, 그 영향력은 유의한 관계를 갖는 변수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유색인의 유산상속액이 적다는 Avery와 Rendall(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특히 인종간의 가족구조, 사회구조적 조건의 상호작용효과로 인해 백인이 유색인에 비해 자녀에게 유산상속을 남길 확률이 크다고 예측한 Burton과 Dilworth-Anderson(199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가족크기에 있어서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산상속 가능성은 낮아 부적 관계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자녀수가 많은 가계는 가족구성원의 일상적 소비와 자녀들의 인적자본투자를 위해 경제적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Blomquist, 1979), 자녀를 적게 둔 가계보다 유산상속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 결과는 자녀수가 많은 가계가 유산상속액에 대한 자녀들의 경쟁때문에 유산상속액이 적다고 한 Eggebeen과 Hogan(1990)의 연구결과와 같이 부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2. 유산상속 관련요인의 변화에 따른 유산상속 확률의 변화

Probit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유산상속 관련요인이

표 4. 유산상속 관련요인의 변화에 따른 유산상속 확률의 변화

변 수(변화수준)	확률변화
경제적 요인	
현재주택지분액(\$10,000 ↑)	.0480
기타주택지분액(\$1,000 ↑)	.0027
저축계좌, 당좌예금액(\$1,000 ↑)	.0036
CD, 정부채권, 증권(\$1,000 ↑)	.0041
건강관련 요인	
정서적 건강	
매우 건강함	.1052
전혀 건강하지 않음	-.1684
신체적 건강(0 VS 1)	-.0898
인구통계적 특성	
교육수준(1년 ↑)	.0208
인 종(0 VS 1)	.2982
자녀수(1명 ↑)	-.0565

변화할 때 유산상속 확률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모델에 포함된 요인의 상대적 크기를 보여 줄 뿐 아니라 유산상속 가능성에 대한 예측모델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Probit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요인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자 2,208 명의 특성 및 평균을 사용한 유산상속 확률을 추정한 결과, 유산상속 확률은 .3835 였다. 한편 다른 요인을 통제한 후, 각 변수를 한 단위를 증가시켰을 때 나타나는 유산상속 확률의 변화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경제적 요인에 있어서 현재주택지분액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1,000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것은 각 변수의 변화수준이 같을 때(절대값이 동일할 때), 유산상속 확률변화에 대한 상대적 크기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타주택지분액, 저축계좌·당좌예금액, CD·정부채권·증권액의 변화에 따른 유산상속 가능성은 각각 .0027, .0036, .0041 정도 증가하였고, CD·정부채권·증권액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주택지분액은 다른 경제적 요인의 평균과 큰 차이가 있어 \$10,000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유산상속 확률은 .0480가 증가하였다.

건강관련 요인에 있어서는 정서적 건강을 보통수준으로 기준했을 때, 매우 건강하다고 인식하면 유산상속 확률이 .1052 정도 증가하였으나 전혀 건강

하지 않다고 인식하면 유산상속 확률이 .1684 정도 감소하였다. 또한 신체적 건강은 질병이 하나라도 있으면 질병이 없는 경우보다 유산상속 확률이 .0898 정도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적 특성에서는, 교육수준이 1년 증가할 때 유산상속 가능성은 .0208 정도 증가하였으며, 백인이 유색인보다 유산상속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자녀수가 1명 증가하면 유산상속 확률은 .0565 정도 감소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는 유산상속동기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유산상속 확률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2 Beta Release HRS 였다. Probit 분석결과, 경제적 요인에 있어서 현재주택지분 및 기타주택지분의 비유동자산액이 많거나 저축계좌 및 당좌예금액, CD·정부채권·증권 등과 같은 유동자산액이 많을 경우, 유산상속 확률이 높았다. 또한 건강관련 요인에서는 정서적 건강상태나 신체적 건강상태가 모두 유산상속 확률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유산상속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있어서 교육수준이 높거나 백인인 경우는 교육수준이 낮거나 유색인인 경우보다 유산상속 확률이 높았으며, 자녀수가 많은 경우는 자녀수가 적은 경우보다 유산상속 확률이 낮았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중 957명(43.3%)이 유산상속을 할 의사가 있었으며, 부모로부터 받은 평균상속액은 \$7,812 였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유산상속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건강관련 요인 및 인구통계적 특성을 표본평균으로 추정하였을 때, 유산상속 확률은 .3835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유산상속에 관한 미래연구 및 정책방향에 대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문제제기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유산상속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유산상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앞서 유산상속의 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유산상속을 하는 개인 및 가계의 특성, 유산상속 동기, 유산상속액, 상속인(자

녀, 손자녀 등)의 특성, 유산상속에 따른 문제점, 현행 상속세의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인이나 가계가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유산상속계획 및 유산상속액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가계의 재정문제를 상담하는 재무상담가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산상속 및 유산상속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후속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조사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부모와 관련된 요인 및 특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자녀에 대한 요인 및 특성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유산상속이 부모 자신의 소비효용뿐 아니라 자녀들의 경제적 복지, 자녀들의 사회인구통계적 특성에 기초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유산상속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들의 경제적 요인, 직업관련 요인, 건강관련 요인 및 사회인구통계적 특성을 포함한 모델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한 연구모델의 수정과 개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모델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유산상속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유산상속에 대한 태도, 자산단체의 기부경험, 위협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유산상속 태도관련 요인도 후속연구 모델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째, 유산상속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각 변수의 변화에 따른 유산상속 확률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유산상속에 관한 정책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유산상속에 의한 불균등 분배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을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비유동자산 및 유동자산의 집중화를 막고 재분배를 위해 금융정책 및 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건강비용을 줄이고 건강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보험제도 및 건강시설에 관련된 건강정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나 가계의 사회경제적 이동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과 전문적 기술훈련에 관한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다(Kosters, 1992).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부의 재분배와 사회경제적 평등을 목표로 하는 상속세 체계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합리적인 유산

상속세 체계는 부의 집중화를 감소시키고 유산상속에 의한 잠재자원의 생산성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상속세로부터 기대되는 국고수입을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과 정책결정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1) Avery, R.B. & Rendall, M.S.(1993). Estimating the size and distribution of baby boomers' prospective inheritance. *Proceeding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Social Statistical Section*, 11-19. Alexandria, VA :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 2) Becker, G.S.(1974). A theory of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1063-1094.
- 3) Becker, G.S. & Tomes, N.(1979). An equilibrium theory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 1153-1189.
- 4) Becker, G.S. & Tomes, N.(198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y* 4, S1-S39.
- 5) Bernheim, B.D.(1991). How strong are bequest motives? Evidence based on estimates of the demand for life insurance and annuit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9, 899-927.
- 6) Bernheim, B.D., Shleifer, A. & Summers, L.H.(1985).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 1045-1076.
- 7) Blomquist, N.S.(1979). The inheritance func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2, 41-60.
- 8) Burton, L.M. & Dilworth-Anderson, P.(1991). The intergenerational family roles of aged black americans. *Marriage and Family Review* 16(3-4), 311-330.
- 9) Carroll, S.L.(1991). American family fortunes as economic deadweight. *Challenge*, 11-18.
- 10) Cooney, T.M. & Uhlenberg, P.(1992). Support from parents over the life course : The adult child's perspective. *Social Forces* 71(1), 63-84.
- 11) Cox, D.(1987).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 508-546.
- 12) Eggebeen, D.J.(1992). Family structure and intergenerational exchanges. *Research on Aging* 14, 427-447.
- 13) Eggebeen, D.J. & Hogan, D.P.(1990). Giving between

- the generations in American families. *Human Nature* 1(3), 211-232.
- 14) Freedman, V.A., Wolf, D.A., Soldo, B.J. & Stephen, E.H.(1991). Intergenerational transfers : A question of perspective. *The Gerontologist* 31(5), 640-647.
 - 15) Greene, W.H.(1993). *Econometric Analysis*(2nd ed.). New York : Macmillian Publishing Company.
 - 16) Hurd, M.D.(1987). Savings of the elderly and desired bequ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77, 298-312.
 - 17) Hurd, M.D.(1989). Mortality risk and bequest. *Econometrica* 57, 779-813.
 - 18) Hurd, M.D. & Mundaca, B.G.(1989). The importance of gifts and inheritances among affluent. In R.E.Lipsey & H.S.Tice(Eds.), *The Measurement of Saving, Investment and Wealth*, 737-758.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9) Juster, F.T. & Suzman, R.(1994).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 An overview. *Health & Retirement Study Working Paper Series*. Core Paper No. 94-1001.
 - 20) Kao, Y.E.(1994). Probability of receiving inheritance and leaving Bequest : Evidence from the 1989 Survey of Consumer Finances. Unpublished Thesis. Purdue University. W.Laf. : IN.
 - 21) Koretz, G.(1992). Would the economy gain from the spreading inherited wealth? *Business Week*, 22.
 - 22) Koster, M.H.(1992). The rise in income inequality. *American Enterprise* 3, 28-37.
 - 23) Kotlikoff, L.J. & Summers, L.H.(1981). The role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s in aggregate capital accumul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 211-234.
 - 24) McLaughlin, D.K. & Jensen, L.(1991). Poverty among older Americans : The problem of the non-metropolitan elderly. Working Paper No. 1991-22. University Park, PA : Population Issues Research Center,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25) Menchik, P.L. & David, M.(1983). Income distribution, lifetime savings and bequ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73, 672-689.
 - 26) Stum, M.S., Bauer, J.W. & Delaney, P.L.(1993). Elderly and Out-of-pocket home care ; Are expenses financially catastrophic? In T.Mauldin(Ed.), *The Proceeding of Ameircan Council of Consumer Interests* 39, 318-323.
 - 27) Tomes, N.(1981). The family, inheritance, and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nequa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 938-958.
 - 28) Zabner, J.M.(1993). Incentive estate planning : Transferring wealth without spoiling the kids. *Personal Financial Planning* 5, 11-16.
 - 29) Zachary, G.P.(1995). Parent's gifts to adult children studied. *Wall Street Journal* Feb. 9. 1995.
 - 30) 통계청(1993). 도시가계연보.